

## 누가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Who's Afraid of the Change?

조성룡 / 조성룡도시건축사사무소  
by Joh Sung - Yong

새 천년 첫 해의 달력을 넘장이나 넘긴다. y2k가 지구를 혼돈 속에 빠뜨리고 지구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지난해 말의 우려는 이제 무관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지난 20세기의 변화무쌍한 시대를 마감하기 아쉬워 지구가 온통 미친 듯이 그믐밤을 보낸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새로운 세기의 원년은 저만치 흘러가고 있다. 악몽 같았던 경제환란 기간 동안 우리는 잠시 숙연하며 잘못된 과정과 판단을 뉘우쳤지만 다시 우리의 일상엔 그 전 상황으로 되돌아간 듯하다. 늘 그랬듯이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면 관성은 원래의 상황을 유지시키는 듯하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 변하지 않으며 지속성을 유지한다고 했던가? 과연 그럴까? 혹시 그리 믿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변한다는 것을 불안해하기 때문에 애써 피하고 싶은 탓이 아닐까?

이러한 이유라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그동안 누려온 기득권과 안위를 놓치고 싶지 않거나 외부의 변화에 둔한 소치이다. 분명 엄청난 변화의 와중에 휩쓸리고 있지만 그 사실로부터 고개를 돌려 어찌면 헤어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에 자신을 거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그 변화를 살펴보자.

'20세기의 대중가요'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이영미 선생은 일제 점령하의 질곡 속에서 태어난 한국대중가요의 뿌리는 암울했던 당시의 사회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일본 엔가(連歌)와 군가(軍歌)에서 발전하였고 막연한 탈출구로서 서구세계에 대한 동경을 부추기기도 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해방과 전쟁의 과정, 다시 미군 점령기 이후의 왜곡된 미국 문화, 그리고 60년대 이후의 군사독재와 문민정부로의 탈바꿈 속에서 어떤 가요는 지하로 잠입하거나 뜬금 없는 반 리얼리티로 피해갔으나 90년대 들어 서서히 지상으로 떠오르고 이제는 그 생경함도 사라져 버렸다. 요즘 밥먹듯이 써대는 정보라는 단어도 불과 얼마되지 않는 시절에는 조심스러운 낱말이었고 붉은색 글씨를 쓰기를 두려워하기도 하였다. 어디 그뿐이랴. 그 때 우리가 광화문 네거리쯤에서 카메라를 마음 놓고 들이댈 수 있었던가.

지난 10여년 동안에 일어난 변화는 수 없이 많다. 건축사와 사업주 사이의 비리를 걱정한다고 하여 소규모 건물의 설계와 감리를 분리해야 된다는 이유를 우리는 꽤 오랫동안 받아들였던 일, 사무소의 영세함이 곧 기

슬수준의 저하이며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판단으로 셋 이상의 건축사가 한 곳에 모여 영업해야 한다는 종합사무소 제도 등등의 어처구니 없는 제도들, 이러한 것이 없어진 것이 1995년의 일이다. 이렇게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은 사고와 재해의 연속 속에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인간사회는 그 환경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이란 제도를 발명해 내고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므로 계약은 약속이 잘못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온갖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예시하고 그것을 법으로 삼았다. 관청에서 추진하는 공공건물의 설계경기가 제도화 된것은 80년대 이후로 기억된다. 계약쌍방이 저지를 지 모르는 비합법적, 비합리적, 반 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편으로 설계경기(이 말 자체도 90년대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아직도 대부분 그전처럼 '현상설계' 라고 부른다)가 도입 되었다. 그 이후 수많은 설계경기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관청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는 규모나 성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정한 틀에 맞추어 설계경기를 치르다 보니 그 내용이 졸속으로 흘러갈 뿐 아니라 실제 내용보다는 겉치레와 형식적인 행사에 더 치중하게 되는 경우도 흔했다. 설계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공정성과 좋은 작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시스템에 있다. 사업계획과 대지 조건에 알맞은 합리적인 프로그램과 기간,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공개,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대부분의 설계경기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기획에 의하여 진행되는 점이다.

이렇듯 시행측의 무모함과 횡포에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는 응모자의 자세와 심사를 맡은 사람들의 무책임이다. 일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설계경기에 참가하고 치열한 경쟁분위기에 휩쓸려 본질보다는 표현에 치중하는 경향이다. 모름지기 설계경기는 건축사의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견주어 보는 이벤트라면, 지금처럼 막대한 돈을 들여 상업적인 컴퓨터 그래픽으로 설계도판을 도배해 놓는 작업 행태에 대하여 부끄러워 해야 한다(대형사무소들은 이 작업에만 수 천 만원을 쓴다는 소문과 그렇게 제작해야 심사위원의 눈에 든다는 서글픈 짐작들은 과장된 것이라고 믿고 싶다).

건축학과의 학제가 5년제로 바뀌게 된다. 과정이나 이유가 어떻든 제도가 현재의 건축가 교육의 저해 요인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제도 탓만도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안이함과 무신경이 오늘날 우리의 건축교육 풍토를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러나 대학마다 5년제 전문과정 개설에 부심하고 있지만 전국의 대학 중에서 10퍼센트 미만이면 충분한 건축가 양성을 위하여 전체가 변화할 필요는 없다. 학제가 바뀔 때 따라 건축사면허의 인증제도가 도입될 것이고 국제시장개방과 맞물려 국가 간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활동하지 않을 건축사들이야 나 몰라라 하겠으나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지금처럼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등록되는 설계경기에서 자격시비가 일어날 것이고 관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외국인과 구별없이 무한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또한 이 변화에서 중요한 사안은 기존대학 학제를 마친 졸업생과 과도기에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자격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일 것이다. 학제변화에 따라 남게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1993년 '건미준'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결성되며 발표한 '건축백서' 에서 건축 3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회원의 구성에서 건축가협회와 건축사회는 면허의 소지여부에서 차이가 날 뿐 기능이나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협회의 관장기관이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로 나뉘어 있는 점도 혼선을 빚는 요인이라할 수 있다. 협회가 시작된 60년대 무렵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에 와서 그 두 단체의 분리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어 전문 직능으로서 사회적인 위상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와 함께 책임과 권리를 마땅히 분별해야 한다.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도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되며 적어도 국제협상과 교류, 교육을 위해서라도 통일된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그 대응이 늦을수록 우리의 입장은 점점 곤란해지고 힘을 잃어 갈 것이다. 3단체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궁리해낼 일은 산적해 있는데 자칫 때를 놓쳐 새로운 변화와 동떨어져 퇴행하지 않도록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폐쇄성으로부터 뛰쳐나와야 하는 건축사의 용기이다.